조선
주체111
(2022)
별호
(791)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를 개척한
조선인민혁명군
주체21(1932)년 4월 25일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이 탄생한 때로부터 90성상이 흘렀다.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세계적인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혁명무력의 오늘이 있고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이 있다.
1932. 4. 25 - 2022. 4. 25.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성대히 경축

특별소식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지금으로부터 90년전 백여정의 보병총으로 침략자들과의 결사항전을 선언했던 첫 무장대오로부터 천만배로 강해진 공화국무력의 경이적인 발전상을 과시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이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열을 받을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는 열병대오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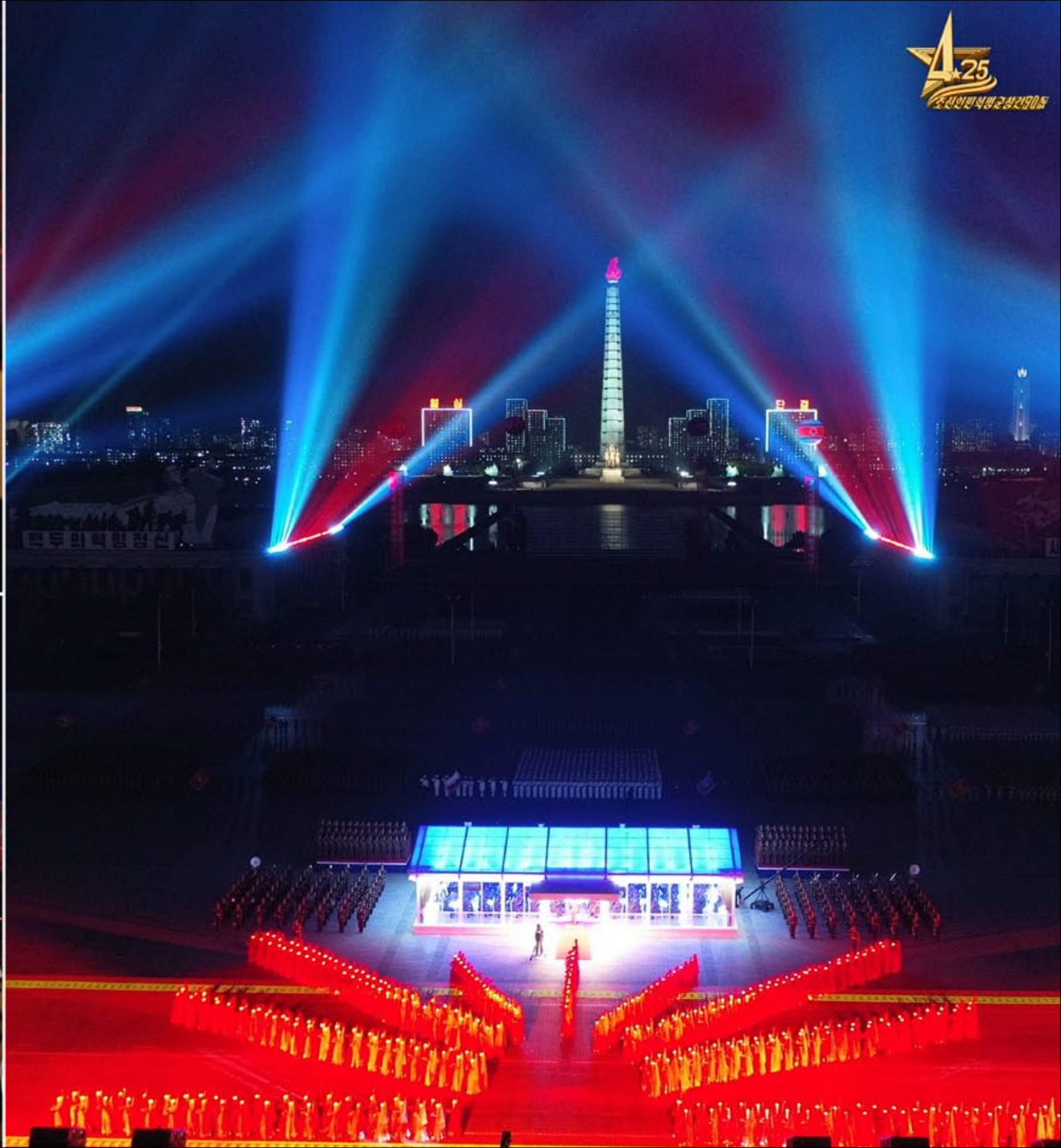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경축하여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4월 25일 조국청사에 특기할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항공륙전병들이 밤하늘의 별무리인양 황홀한 강하기교를 펼치고 대형국기를 세차게 나붓기며 광장에 착륙하여 열병식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혁명군가를 높이 울리며 종합군악대의 입장례식이 진행되였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선포하신 주체21(1932)년 4월 25일이 있어 장장 90성상 가장 포악한 제국주의강적들과 당당히 맞서 백승을 떨쳐온 일당백혁명강군의 빛나는 력사, 세계에 유일무이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혁명적당군의 고귀한 전통이 시작되였음을 경쾌한 선률과 박력있는 률동에 담아 펼쳐보인 례식은 열병광장의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노래 《우리의 국기》의 장중한 선률에 맞추어 항일빨찌산의 군모에 빛나던 오각별을 형상한 녀성률동대렬이 광장주로에 투영되는 붉은 주단을 따라 들어섰다.

화보
【특별소식】
90
돐
1932-2022
경
축
4.25

공화국의 존엄이며 영광인 국기가 창공에 올랐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1(2022)년 4월 25일

영용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

열병부대 지휘관, 병사들!

경축의 광장에 초대된 전쟁로병동지들과 모범적인 군인, 공로자동지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의깊고 영광스러운 기념일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장구한 건군사의 영광이 끝없이 빛나는 이 시각 우리 모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굳건히 수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는 자기 무장력에 대한 크나큰 자부에 넘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은 승리의 군기들을 앞세우고 여기 **김일성**광장에 정렬한 미더운 정예부대들의 모습과 그를 통한 공화국무력의 현대성의 높이를 보면서 90년전 조선의 진정한 첫 무장력의 탄생이 우리 혁명사와 민족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장래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심원하고 위대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다시금 새겨보게 될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민족해방, 자력독립의 기치높이 반제결사항전을 선포한 거족적장거인 동시에 강력한 혁명무장력에 의거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이 사변의 중대한 의미는 력사의 풍운속에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인민이 자기의 민족군대와 중흥의 희망을 가지게 되였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자들과는 끝까지 무력으로 결산하려는 견결한 반제혁명사상, 주체적 힘으로 기어이 인민의 자유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조선혁명가들의 굴함없는 의지를 내외에 선언하였다는데 있습니다.

력사는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조선혁명가들이 선택한 이 결단과 의지가 천백번 옳은 것이였음을 명백히 실증해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백두밀림에서 추켜든 혁명의 무장은 분출하는 조선민족의 독립정신이였고 희망이였고 위대한 단결의 기치였으며 눈물로 얼룩졌던 조선사람의 주먹에 자존의 기상과 억센 힘을 재워준 원동력이였습니다.

바로 이 무장대오에서 조선혁명의 원대한 구상이 무르익고 제국주의폭제를 이길 불요불굴의 정신과 강철의 힘이 벼려졌으며 우리 혁명발전에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통이 마련되였습니다.

우리의 혁명무력이 창건초기부터 간직하고 계승해온 그 사상과 신념, 전통은 류례없이 치렬한 반제대결전과 준엄한 계급투쟁의 전초선에서, 변천되는 력사적환경속에서 자기 본연의 혁명적, 계급적성격과 사명을 명심하고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령토와 인민을 사수함에 불멸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게 한 정신력의 바탕으로, 백전백승의 담보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만고의 혈전혈투로 조국해방, 민족재생의 대업을 이룩하였고 무비의 영웅정신으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과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고결한 희생정신으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전 력사적기간 자기 집권당과 정권, 자기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며 백승의 무훈을 기록해온 그렇듯 영용하고 강인하며 충직한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을 무상의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귀중한 모든 전취물, 모든것의 첫자리에는 우리 혁명군대의 공헌이 깃들어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군대는 국가방위의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힘있는 력량으로서 언제나 당의 구상을 받들고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는 거창한 혁명사업들에 헌신적으로 분투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는데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기 당과 정권,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최고의 영예로 간주하고 조선혁명의 혈통,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하였으며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한 혁명적무장력의 90성상의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한세기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력사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것입니다.

우리모두는 간고하였던 혁명의 년대기마다 위대한 무장력이 항상 앞장에서 진군로를 열어왔으며 영광스럽고 보람넘친 공화국의 승리사가 혁명군대의 고결한 피와 땀과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이제 이 승리의 열병식장으로 도도히 행진해갈 공화국무력의 정예부대 장병들과 지금 이 시각도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대전역들에서 위훈을 세우고있는 우리 군인들모두가 바로 우리 무력의 영광스러운 력사의 당당하고 긍지높은 계승자, 체현자들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혁명선렬들의 대를 이어 위대한 계승의 려정을 걷고있는 조선인민군과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을 국가방위의 전초선에 내세운 이 나라 모든 가정들에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저 합니다.

동지들!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무장으로 담보하여온 혁명무력의 영광넘친 90성상의 행로는 백년, 천년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주한 시대에서 강군의 영광을 계속 떨치며 지나온 90년사와는 대비할수 없는 빠른 속도로 더 강하게 변해가야 합니다.

힘과 힘이 치렬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합니다.

자기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강세는 보다 확실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혁명이 이를 요구하며 후손만대의 장래가 이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건설의 총로선은 인민군대를 백전백승하는 군대로 만드는것입니다.

백전백승하는 군대,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이름, 혁명적무장력만이 지닌 고귀한 명예로 빛나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건설방향과 총로선을 견결히 틀어쥐고 혁명무력발전의 새 단계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정치사상강군화, 군사기술강군화를 핵심목표로 정하고 우리 무력을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절대 충성하고 자기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어떤 전쟁과 위기에도 주저없이 대응할 용기와 능력, 자신감에 넘치는 최정예강군으로 발전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정치사상강군화는 우리 군건설의 기본이며 전략적인 제1대과업입니다.

우리 혁명군대를 당과 인민의 군대, 계급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게 하며 어떤 형태의 전쟁과 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서 기본은 군대의 정치사상적준비이며 무장력의 주체인 군인대중의 사상정신적준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욱 배양시켜야 할 군대의 투철한 혁명정신, 계급의식은 우리 군대의 전투력, 국가방위력을 갖추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혁명의 세대는 계속 바뀌고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은 백두에서 뿌리내린 위대한 혁명사상과 정신의 바통을 굳세게 계승해나가는것을 군건설, 반제투쟁의 초미의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고있으며 우리는 이를 군건설의 기본핵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우리 혁명무력의 질적인 우세를 확고히 유지강화해나갈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사상혁명에 계속 불을 걸고 군인대중의 혁명사상배양, 정신력배양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신념의 강군육성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모든 장병들을 오직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만 싸우며 투철한 계급의식과 불굴의 전투정신을 체질화하고 당중앙이 정한 과녁의 중심에서 단 한치의 편차도, 단 한번의 불발도 모르는 사상적근위병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또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상승시키기 위한 군사기술강군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세계군사력의 발전추세와 현시기 급속하게 변화되는 전쟁양상은 우리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 빠르게 현대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군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를 고도의 군사기술력을 갖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군사인재육성체계의 현대화를 추동하여 각급 군종, 병종부대들을 능숙히 지휘통솔할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들을 더 많이 키우고 작전전투훈련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전군의 모든 부대, 구분대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새세대첨단무장장비들을 계속 개발, 실전배비하여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을 부단히 향상시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능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조성된 정세는 공화국무력의 현대성과 군사기술적강세를 항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할것을 재촉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정치군사정세와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가 억척같이 걸어온 자위적이며 현대적인 무력건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줄기차게 나갈것이며 특히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것입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있을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합니다.

동지들, 인민군장병들!

지금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있게 준비되여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것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 무력은 언제나 자기 위업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고 자신심에 넘쳐 온갖 도전들을 맞받아 용감히 나가야 하며 인민의 안녕과 존엄, 행복을 지키는 성스러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고 무적의 군사적강세를 틀어쥐고 우리의 사회주의발전을 든든히 담보해야 합니다.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

당신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선렬들의 진한 피와 고귀한 넋이 힘차게 높뛰고 혁명무력이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의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힘의 체현자로 항상 혁명의 전위에 서있는한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입니다.

조선인민군과 전체 공화국무력의 지휘관, 병사들!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우리의 혁명적무장력 만세!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승리의 대열병관현악에 맞추어 최정예강군의 열병대오가 위풍당당히 광장으로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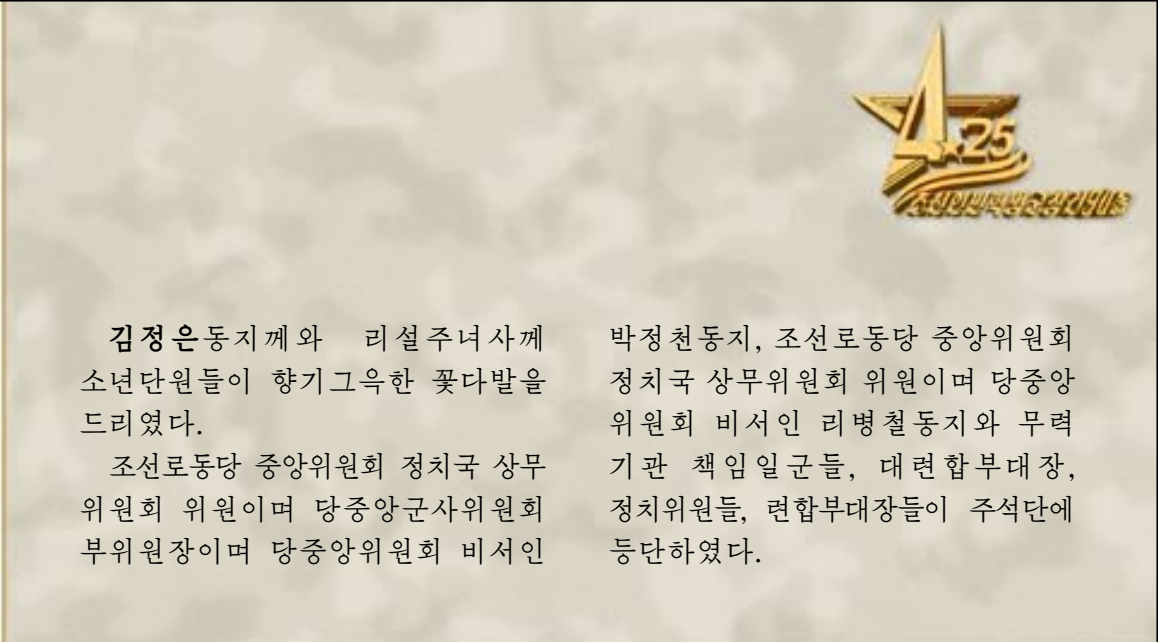
광장과 잇닿은 대통로들에는 90년전 이날 백여정의 보병총으로 침략자들과의 결사항전을 선언했던 첫 무장대오로부터 천만배로 강해진 공화국무력의 경이적인 발전상을 보여주는 각종 첨단무장장비들이 정렬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와 대련합부대 영광의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동지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였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와 리설주녀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와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대련합부대장, 정치위원들, 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최정예강군, 혁명적당군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나아가는 열병종대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동지가 귀빈석에 자리잡았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 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공화국기가 세차게 펄럭이는 상공으로 축포가 터져올라 경축광장을 감격과 환희로 끓게 하였다.

노래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주악이 울리는 속에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축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90년전 조선의 진정한 첫 무장력의 탄생이 우리 혁명사와 민족사 그리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장래발전에서 가지는 심원하고 위대한 의의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백두밀림에서 추켜든 혁명의 무장은 분출하는 조선민족의 독립정신이였고 희망이였고 위대한 단결의 기치였으며 눈물로 얼룩졌던 조선사람의 주먹에 자존의 기상과 억센 힘을 재워준 원동력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선렬들의 진한 피와 고귀한 넋이 힘차게

화보【특별소식】
임의의 작전공간에서 번개를 치고 우뢰를 치며 원쑤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릴 만능의 싸움군들로 준비된 열병대원들

높뛰고 혁명무력이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의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힘의 체현자로 항상 혁명의 전위에 서있는한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길동지가 열병부대들이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박정천동지가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 박정천동지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였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여나 력사의 발걸음마다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기며 무적의 최정예강군, 혁명적당군으로 장성강화된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장엄한 행진을 시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중추를 이루고 국가방위의 제1선진지들을 철옹성같이 지켜나가고있는 핵심부대, 주타격전방의 장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에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에 충실해온 고귀한 전통을 빛내이며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열병대원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당중앙사수에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이 있고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이 있다는 철리를 증폭하며 열병대원들이 터치는 《만세!》의 함성이 광장에 메아리쳤다.

조선민주주의
90
경축
백두의혁명정신

일심
단결
백두의혁명정신
새로운승리를향하여

초저공비행과 급상승비행을 하며 광장상공에 비행운을 수놓는 전투비행사들

이어 수도의 밤하늘에서는 조선인민군 공군의 열병비행이 시작되였다.

장쾌한 폭음드높이 광장을 꿰지르는 초저공비행과 불줄기를 뿜으며 솟구치는 급상승비행을 보면서 관중들은 연해연방 탄성을 올렸다.

부채살을 형상한 편대가 축포탄을 터치며 당중앙결사옹위의 항로에 충성의 비행운만을 수놓아갈 전투비행사들의 불같은 맹세를 하늘에 아로새기였다.

조선로동당에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오직 당중앙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는 충성의 전위대오인 영웅적 조선인민군에 대한 신뢰심이 끝없이 분출되는 속에 기계화종대들이 장엄한 열병진군을 개시하였다.

높은 기동력과 섬멸적인 타격력으로 적들이 손쓸새없이 침략전쟁장비들을 초기에 풍지박산낼 멸적의 기상을 안고 최신형전술미싸일종대들이 군기를 나붓기며 열병광장에 진입하였다.

4 25

그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는 천하무적의
첨단화된 공격형타격집단으로 자라난 철의 대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쇠주먹인 주력땅크종대가 우람찬 철마의 굉음으로 지축을 울리며 광장을 누벼나갔다.

당중앙이 발사명령만 내리면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고 승리의 축포를 쏘아올릴 원쑤격멸의 의지를 강철포신마다에 비껴안고 인민군대의 제1병종, 세계최강의 병종인 미더운 포병무력이 나아갔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인 무쇠주먹 주력땅크종대

인민군대의 제1병종, 세계최강의 병종인 포병무력

화보 【특별소식】
4.25

세상에 없는 조선의 절대병기의 하나인 초대형방사포종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희세의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그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는 천하무적의 첨단화된 공격형타격집단으로 자라난 철의 대오가 열병광장에 도도히 굽이쳤다.

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안에 두고 임의의 순간에 선제적인 련속타격으로 초토화할수 있는 세상에 없는 조선의 절대병기의 하나인 초대형방사포종대가 위엄있게 전진했다.

하늘과 땅, 바다, 우주의 그 어느 공간에서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능히 대응해줄수 있고 적을 단호히 제압분쇄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수행능력을 과시하며 전략미싸일종대들이 등장하였다.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한없는 자긍심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소중한 우리의것, 억만금을 준대도 바꾸지 않을 민족만대의 재부인 조선로동당식주체병기들이 광장으로 련이어 들어섰다.

화보
【특별소식】
인민공화국만세!
4.25
1932-2022
경축
181
182
183

화보
【특별소식】
4.25

하늘과 땅, 바다, 우주의 그 어느 공간에서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능히 대응해줄수 있고 적을 단호히 제압분쇄할수 있는 전략미싸일종대

화보
【특별소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90
돐
경
축
275
278

열병식장으로 들어서는 조선로동당식주체병기들

장중한 음악과 함께 투광조명이 집초되고 황홀한 불줄기들이 솟구치는 속에 공화국전략무력을 대표하는 거대한 실체가 지심을 무겁게 누르며 들어섰다.

지난 3월 24일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까이하는 온 광장이 삽시에 환희와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주체의 넋이 피줄처럼 흐르고 천만인민의 애국의 숨결이 높뛰며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거대한 힘이 실려있는 세계최강의 병기의 장쾌한 흐름은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인 자위적국방력, 전쟁억제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더욱 강하게, 더욱 줄기차게 추진해나갈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우뢰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드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가 찬연한 불보라되여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드시여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4.25
90
291
29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90
돐
경축
1932-2022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은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성하는 혁명적당군, 믿음직한 평화의 수호자로 위용떨치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과 완수를 담보해나가는 공화국무력의 불패성과 강대성, 변혁적인 발전상을 다시금 만방에 과시하는 특대사변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국가의 선진성과 현대성, 영용성이
응축된 절대병기들

백두의 혁명정신
경축
X05250711
X0722020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90 돐
경축
백두의혁명정신

화보
【특별소식】
4.25

주체111(2022)년 3월 24일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화보【특별소식】
위대한 우리의 혁명적무장력 만세!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즈음하여 4월 25일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정천동지, 리병철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이 동행하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화환이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혈전만리를 헤치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창조한 항일선렬들의 공적과 만고의 항쟁사를 경건히 회억하시면서 김책동지, 안길동지, 류경수동지, 최현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혁명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투철한 신념, 자기의 위업의 정당성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니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을 사생결단의 정신력으로 뚫고 이기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계승의 력사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통을 창조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을 다진 항일빨찌산의 불멸의 공적은 후세토록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주체의 건군사는 백두산정신의 무궁무진한 견인력과 불멸의 생명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에 길이 빛날 4월 25일이 있어 세계적인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혁명무력의 오늘이 있고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이 있다고, 사상의 혈통, 신념의 피로 이어지는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라고 하시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은 우리 혁명강군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재보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의 신념과 강인담대한 배짱, 비범특출한 령도력으로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시며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넘친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선렬들이 물려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강력한 보루를 억척으로 다져나가는 영예와 보람속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맞이한 군지휘관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계승은 단순한 대물림이 아니라 투쟁정신의 계승, 힘차게 살아높뛰는 불굴의 넋의 계승이라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우리 군대의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원천이라고 하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전률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력사는 세계의 군건설사에 전무후무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혁명군대는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변색과 변질을 모르고 언제나 필승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선렬들이 물려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강력한 보루를 억척으로 다져나가는 영예와 보람속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맞이한 군지휘관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계승은 단순한 대물림이 아니라 투쟁정신의 계승, 힘차게 살아높뛰는 불굴의 넋의 계승이라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우리 군대의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원천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은 붉은기를 사수하고 붉은 사상을 지키며 붉은 제도를 옹호보위하는 당의 붉은 총대, 붉은 보검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줄기찬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랑하는 전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에 이어 항공륙전대 전투원들이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당중앙뜨락에 강하하고 군지휘관들이 본부청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부국강병의 대업을 실현해가는 전투적려정에서 맺어진 령도자와 전사들사이의 혈연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를 모시고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박정천동지는 시련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며 조선혁명의 피어린 력사를 개척한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전설적위인들의 슬하에서 키운 슬기와 담력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 강군건설의 대업을 위하여 억세게 전진해나가며 강력한 혁명무장으로 우리 당의 영광, 우리 인민의 영광,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광을 떨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당 총비서이시며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반드시 륭성부흥할 우리 국가를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은 붉은기를 사수하고 붉은 사상을 지키며 붉은 제도를 옹호보위하는 당의 붉은 총대, 붉은 보검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줄기찬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는 사랑하는 전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참가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참가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참가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참가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참가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참가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보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지휘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 평양시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 평양시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 평양시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 평양시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중앙미술전시회 진행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진행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주체형의 혁명적무장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 서슴없이 바쳐 싸운 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심어주는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수도 평양에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되고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중앙미술전시회,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가 열렸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평양시와 각 도소재지들, 시, 군들에서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글 김선경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공연 진행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 진행

4·25
조선인민혁명군창건90돐

백두산혁명강군의 억센 뿌리가 내린 영광스러운 4월 25일과 더불어
조선의 존엄, 조선의 국력은 더욱 강대해질것이다

낸곳: © 조선화보사 2022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